

1번

1. 일단, 구조적으로 3자비교에 출제의도에 따른 형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입니다. 3자비교는 연세대학교 모든 출제의도상 가/나다, 그리고 나/다로 2번의 비교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2. 그리고 1문단에서 서술한 내용이 2문단에 그대로 서술되면서 중복서술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3. “앞으로 나아가지도,뒤로 후퇴하지도 못하며 자신의 체계속에서만 창조와 파괴 사이를 맴돌 뿐이다” 또한 이 내용은 제시문 불일치입니다, 전체적인 크기만 불변하는 것이지 움직임은 포착되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4. “창조와 파괴를 주도하는 실체는 진화하고 발전하는 하나의 체계이다.” 이것 또한 애매합니다. 창조와 파괴의 객체인 자본주의가 진화하는 것이지, 주체가 진화한다고 표현한 것은 애매한 서술입니다.
5. “물질적인 것에만 의존하게 하려는 부르주아의 창조와 파괴 행위는 사회를 쇠퇴하게 만들었다.” 여기서도 부르주아가 창조와 파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창조와 파괴의 대상은 신분체계이고 지배적 관념입니다. 오독으로 보여지네요.
6. 현재, 같은 내용상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서 글을 동일한 내용으로 채우고만 있으며, 제대로 된 비교 형식에 따라 명확한 비교 기준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 제시문을 공통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시문에 대한 독해와 비교 유형에 대한 이해도 전체적으로 모두 문제로 드러납니다.

3번

1. “표 분석만으로 1000자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같은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어떻게 써야 모범답안이 될까요?? ” 표 분석만으로 어려우시다고 했는데, 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답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분석을 전부 못하셨기에 3개의 내용이 있다면 1개만 쓰게되고 내용이 부족하니 1개의 내용을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2. “ 제시문 (라)의 <그림3>을 보면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한 시간당 생산량과 실질임금의 상승을 설명할 수 있다.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생산량과 임금의 상승은 질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또한 <그림1>에서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실질 가계소득이 증가했음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그러나 제시문 (나)는 <그림2>의 계층별 실질 소득 증가율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그림3>의 생산량과 실질 임금 또한 그러하다.이 문제는 제시문 (다)와 연결짓는다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다. ” 여기서 표의 많은 부분의 해석이 빠졌습니다. 그림 1과 2는 74년도에 의해 구분되는데 이는 같은 기준의 표를 괜히 년도 상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그림 3에서 74년도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3에서도 74년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구요. 따라서 74년도는 (나)의 관점에서 창조적 파괴, 새로움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그림1은 자본주의 발전 x 그림2는 자본주의 발전o입니다. 따라서 그림 1,2가 발전정도에 따라 차이나는 것이구요. 마지막으로, (나)는 자본주의가 끝없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림 3에서 나오지 않은 년도 이후에도 계속적 발전으로 격차가 벌어진다는 해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응 에서도 그림 2와 3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셨기에 대응도 오답이구요.
3. 방금 전 해석에 따라 74년도 이후인 그림 3과 그림 2는 자본주의 득세 상황 즉 프롤레타리아 발전의 상황입니다. 그림 (다)에 따르면 74년도 이전의 그림 3과 그림1은 자본주의적 위계질서가 아닌 상황이라고 봐야되는데 이 내용도 없고,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위계질서가 생기고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내용도 전무합니다. 그리고 결론또한 그림3에 나오지 않은 미래는 (다)에 따르면 무너지고 그림1, 그림3의 74년도 이전상황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결론도 없구요.

전체적으로 처음에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 위주로 침삭했습니다.

표 분석만으로 1000자는 채워집니다. 표 분석이 안되기에 1000자가 부족한 것입니다.